

4. 민자사업의 성공·실패요인

1) 개요

정부지원체계의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과 각종 부담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까지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실적은 전체적으로 기대했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의 경우 일부 환경시설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민자유치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사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민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지 못한 때문이며, 구체적으로는 민자사업의 기본개념에 대한 인식의 결여와 경험부족, 시장의 미성숙을 꼽을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모든 사업들이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해 성공하는 경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 지난 '90년대 초 동남아 국가와 남미국가를

중심으로 많은 민자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실패함으로써 프로젝트금융의 구조를 새로 짜거나 협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러한 실패사례들은 역설적으로 민자사업의 성공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2) 실패요인과 성공요인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들을 고려하고, 그러한 위험들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동원한다. 외국에서 추진된 다른 모든 프로젝트들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실패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사업을 실패시킬 수 있는 위험은 우리가 고려했거나 고려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해결방법은 매우 제한적이고, 현실점에서 가능한 수단 및 해결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험은 사업 자체에도 있고, 외적인 것들도 있다. 수요부족이나, 비용증가, 운영능력 부족 등 사업 내적인 요인은